



완도 모래조각 경연대회 명사십리 새 명물로

'청해진 모래조각 경연대회'가 '위대한 유산, 바다의 미래 장보고!'를 주제로 펼쳐진 제 11회 완도 장보고 축제의 일환으로 6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열띤 호응을 얻었다.

조선대 정운태 교수(미술관장)와 미대생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경연 대회에는 ▲ 1천200년 전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해상활동상 ▲파도위로 해엄쳐 다니는 돌고래 ▲바다속 풍경 ▲고뇌하는 인간 ▲동굴속을 파고드는 인간 ▲인어공주 ▲우물 안 청개구리 ▲아빠와 아기의 손가

락 등 다양한 12개 모래조각 작품이 선보였다.

이곳을 찾은 한 관광객은 "갑옷차림의 장보고 대사가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조각이 가장 인상적"이라며 "천혜의 금빛 모래사장에 만들어진 모래조각 캐릭터들이 친근감 있고 상상력을 더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7~8월 해수욕철에도 모래조각 작품전을 개최해 KBS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전남 서남부 조선산업 新메카

1분기 선박관련 수출입 5억5천만달러...전년비 113%

현대삼호중공업 수주 대호황...관련업체도 속속 입주

목포 등 전남 서남부 지역이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7일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종)이 발표한 올 1~4분기 중 목포 등 전남 서남부 지역 조선산업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선박 및 선박제조용 원자재의 수출입 실적은 5억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재 목포세관 관내 6개 업체가 선박건조를 위한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가동 중이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벌크선 위주의 건조에서 유태부터는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 선박과 FPSO1, LNG 운반선 등 특수선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수주 물량은 해도 일반화물선과 컨테이너 화물선 등 약 70여척을 계약해 놓은 상태로, 2008년도까지 수주량을 확보해 당분간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올 3월에는 삽진산단에 소재한 목포조선공업(주)이 선박건조 보세공장으

로 신규 특허를 받아 수출용 선박 건조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케이와이종 공업(주) 보세공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케미컬 선박을 건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불자유무역지역에는 총 10개의 업체가 입주하기를 받아 현재 KS아시아선업(주), 현대미포조선, 리바트(주) 등 5개 업체가 조선산업 관련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부 지역은 향후 현대삼호중공업과 함께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수출입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새로운 중형조선소가 잇따라 입주할 예정이어서 국내 조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 지역 단신 /

무안기업도시 지원사업소 승격

무안기업도시 건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무안기업도시 건설지원사업소가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소와 동일한 행정기구로 승격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무안기업도시 건설 지원사업소 소장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승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무안군 기업도시사업소의장을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이로써 무안기업도시 건설지원사업소는 5월 중에 행정 조직 개편 안을 행자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6월 깨에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7월에 1국, 4개과 규모의 기구로 확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항내 위법 행위 특별단속

목포항내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목포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목포해양청과 목포시, 목포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동점검반이 구성됐으며 목포항내에서의 무허가 선박 수리를 비롯, 불법으로 행위와 폐기물 투기 등이 집중 단속된다.

김경진 목포해양청장은 "목포항은 수입 밀을 비롯 석탄과 모래 등 바다를 오염시키기 쉬운 화물들이 많다"면서 "해양오염 행위는 물론 해상교통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J프로젝트 성공 기원 작품 공모전

영암군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하는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영암교육청의 '氣@yeong-am'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번 공모전에 대한 내용과 추진성과가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J프로젝트 사업내용과 추진성과 등의 자료를 각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이달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하게 되며, 작품내용은 관광레저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제안이나 희망사항 등이다. 우수작은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영암군수상, 영암교육장상을 시상하며 문화관광부에 우수작품 수록집 발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영암=김한님기자 hnkim@



무안 황토 양파 본격 출하

무안 황토조생종 양파가 예년보다 다소 늦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가격은 올 겨울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10% 가량 비싸

kg당 80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안 황토조생종 양파는 청계면 강정리, 복길리 등 주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매운 맛이 적고 달아 소비자의 기호도가 매우 높다. 특히 셀레늄과 게르마늄 함량이 높아 혈액순환촉진, 콜레스테롤 저하에 효능이 뛰어난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남해안 멸치·전어 어황 전망 밝다

남해수산연구소 밀도조사 작년보다 크게 늘어

올해 남해안 멸치와 전어 어황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지난달 4일부터 19일까지 시험조사선을 이용해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자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치와 전어의 분포밀도가 높았다고 7일 밝혔다.

km당 어군 분포밀도는 6.5t으로 지난 해 3t에 비해 2.1배 높게 나타났으며 전

경이(27.3%), 전어(12.8%), 황어(9.9%), 멸치(8.8%), 보구치(4%) 순으로 잡혔다.

전갱이와 보구치는 부산~거제 해역에 집중 분포한 반면 전어와 멸치는 남해 중서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멸치의 경우 평균 몸통길이가 10.3cm

로 통영~목포 연안에 높은 분포밀도를 보였고 산란 가능한 개체가 72%로 높게 나타나 예년에 비해 어황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통영~목포간 해역에 분포한 전어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분포밀도를 보였고 몸통길이가 지난해에 비해 큰 개체군이 많이 출현한 점으로 미뤄 올해 전어 어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됐다.

황어의 분포밀도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증가했고 참돔과 불가루 등 고급어종도 출현현황이 예년에 비해 약간 많았다. /목포=이상희기자 lsh@

축·야·달·밭·지·자·인·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66~8584)	목 포 276~9200 (666~8584)	나 주 332~5544 (334~6969)
광 양 792~8111 (853~9700)	무 안 452~8535 (554~6677)	니·남부 334~6969 (374~4423)
전 천 746~8111 (842~2121)	해 순 534~5151 (510~1000)	장 성 392~7000 (383~8111)
고 흥 842~2121 (783~8111)	영 신 351~1004 (43~3758)	충 앙 383~2340 (863~8822)
구 구 783~8111 (362~8111)	전 진 543~0100 (43~8355)	전 산 564~1949 (564~1919)
곡 성 362~8111 (324~8111)	경 합 324~8111 (324~8111)	전 창 653~6155 (653~6155)

관광목포 시티투어 7월부터 유료화

순환버스 운송사업자 모집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 목포 시티투어'가 새롭게 출발한다. 시는 "2004년 시작된 이 시티투어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목포의 홍보대사로 활용하기 위해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한

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이 시티투어를 오는 7월부터는 유료화하고 적자 부문에 대해서는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

운송사업자 모집 사업설명회는 오는 12일 목포시청에서 열리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그리고 주택 매매는 대지 49평 매 1억3천 대지 77평 매 1억7천 (그외 상가등 물건 디수 보유) 1만명이상

• 3층 212평 88평
기능업종: 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과/노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기능업종: 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기능업종: 스카이라운지, 흐프, 당구장등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1-638-2656
(삼무 우리별관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 기도원 부지 : 장성, 담양, 홍성 2만평이상
가격은 싯가
◎ 장성 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 병원 신축부지 :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카센터부지
광산구 우산단 대지 117평 평당 220만원 20m 도로변
◎ 삼가부지
양천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 450만원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 55만원
◎ 북구 용두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청역부근
미륵동 574평 평당 400만원 40m 도로 계획선에 접촉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미륵동 화훼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개발(주)

☎ (062)525-0021, 천정상당 011-612-3421

경매 특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무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낙찰시 임대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1. 하남 80m 도로변 원대 절반가는
건물 지상층 1층 12평 대지 17평
김정기 30억/최저가 15억

2. 월간지구 월간지구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 181평 준공 1년된 건물
김정기 25억/최저가 12억

3. 평동공단 공장용지 1300평 2층
공장 720평 김정기 25억/최저가 15억

4. 삼수지구 차평동 신축5층건물 대지
128평 김정기 35억/최저가 18억

5. 하남 월간지구 월간지구 2층 건물
김정기 25억/최저가 15억

6. 평동 2층 건물 대지 100평 김정기 25억/최저가 15억

7. 평동 2층 건물 대지 100평 김정기 25억/최저가 15억

8. 평동 2층 건물 대지 100평 김정기 25억/최저가 15억

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광양시 대마리 주거용 건물 5층 대
지 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

실물도적증 등록기구 기관원동시

별장 1동 100평 1층 100평 김정기 15억
3층 주거용상 35평 김정기 15억

2. 광양시 대마리 주거용 건물 4층 대
지 128평 김정기 35억/최저가 18억

3. 광양시 대마리 주거용 건물 4층 대
지 128평 김정기 35억/최저가 18억

4. 광양시 대마리 주거용 건물 4층 대
지 128평 김정기 35억/최저가 18억

5. 광양시 대마리 주거용 건물 4층 대
지 128평 김정기 35억/최저가 18억